

보도시점

2024. 12. 17.(화) 11:00

배포

2024. 12. 17.(화) 11:00

## 한국농어촌공사, 행복청·세종시와 다목적 복합사옥 신축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정부·농어업인과의 소통 활성화 및 위기대응 강화 등 공익적 공간 조성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형렬),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와 행복도시 내 ‘다목적 복합사옥’ 신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복합사옥은 국토의 중심부인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위치하며, 전국에 분산되어있는 농업기반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정책지원 업무를 한 곳에 집적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농어업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거점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복합사옥은 연면적 약 2만㎡ 규모로 지상 8층, 지하 2층으로 구성되며, 약 200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또한, 사옥 내 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를 신설하여 기후 변화와 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어업 부문의 디지털 혁신과 정책 실행의 신뢰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부지 공급과 도시계획 변경을, 세종시는 건축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며 한국농어촌공사는 내년부터 토지취득과 세부 설계 작업에 착수해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다목적 복합사옥이 국가의 균형발전과 농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사옥이 업무 지원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농어업인의 편의와 복지를 높이는 공익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       |     |     |     |                |
|-------|-------|-----|-----|-----|----------------|
| 담당 부서 | 자산재무처 | 책임자 | 부 장 | 정정화 | (061-338-6081) |
|       | 자산관리부 | 담당자 | 차 장 | 이흥배 | (061-338-6082) |